절집에서 띠삼재, 풀이, 기도, 부적이라니…

불 · 법 · 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선재불교대학) 도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 내)
☎ 055)633-6555

얼마 전 지방 불교방송에서 재가불자가 지금 전 세계를 불안과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코로나19. 이것은 부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대재앙의 삼재 중 소삼제에 해당하는 질병재(疾病災)임을 우리 불자들은 알아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부처님이 일찍이 경전에서 2500년 후 (현 2542년) 정법이 사라진 말세(2500년)가 오면, 우리 중생들의 탐욕으로 지구의 괴멸로 인한 자연의 대재앙을 예고하셨다. 이것을 크고, 작은 출가수행자들이 부처님 유지를 잘 받들어 바르게 실천해 왔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방송 스타급 ○님, ○사들이 방송이나 법문, 강연 등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눈치 보지 말고 바르게 알렸어야 했는데, 실제하고 있는 것은 어느 눈 푸른 납자가 한국불교는 돈만 챙기고 있다고 했듯이 1년 내내 잡귀행상인 사주, 삼재풀이, 부적, 기도(운, 재수, 대학합격, 승진), 인등, 방생, 성지순례 등을 하면서 또 경내 다른 공간에서는 말과 글로만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으며, 어떻게 쓸 것인가?

이뭣고(이 무엇인고), 비워라 그러면 보일 것이다 등등.. 정법, 정법하면서 이것이 정법이라면 이 환란이 겉잡을 수 없을 때 불보살님께 고해보라. 지금의 상황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었고, 이때야말로 우리가 대자비로, 대어버이로 칭송하는 불보살님과 모든 성인의 권능과 신들의 힘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평소에 한 행위를 봐서는 불보살님 앞에 고하기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왜, 띠삼재, 부적 등 잡귀 행상 말고는 한 것이 없다. 오로지 절에 가면 기도(합격, 승진, 재수, 운), 사업 성취 등등하면서 경쟁적으로 나와 내 가족 말고 한 게 있는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타행, 자비심, 보리심은 아예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이기심만을 부추길 뿐이다. 그러다 보니 예로 입시부모로써 우리 애가 떨어지고 옆집 애가 합격하면 질투 말고는 한 게 있는가?

미국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의 이런 말이 있다. '폭력(바르지 않은 것)을 외면하고 악을 말하지 않는 것 또한 악이다'

【사례① 희귀병】

금년(2020년) 추석을 10일 정도 앞두고 한동안 소식이 없던 보살이 전화를 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스님"하면서 찾아왔다. 그날이 23일이다. 그때서야 그가 몇 달 만에 온 것을 알게 되고, "그래 그동안 무엇을 하고 지냈냐"고 묻자 그동안 몸이 아파 여태껏 M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온 것이라 한다. 왜,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고 하니 몸 전체가 아프다고 한다. 보니 몸도 많이 야위었고, 형색도 영락없는 환우의 모습이다. 빨리 기도 날짜를 잡으라고 하며 신도 중에 보살과 제일 가까운 친구를 보호자 삼아 불러 달라고 했고 그 보살하고 협의해서 기도날짜를 정하라고 했다. 참고로 이 보살은 조용하고 말이 없는 보살이다. 그렇게 해서 9월25일(금), 26일(토) 이틀간 새벽 예불시간에 오게 하여 기도를 해 주었고, 기도를 받고나면 집에 가서 그동안 아팠으니 푹 쉬어라 했는데 26일(토) 아침 공양을 마치고 친구와 같이 작업복 차림으로 온 것이다. 아니 왜 왔는냐고 물으니 "스님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하면서 스님 일을 거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때 약 보름(15일) 정도 계획으로 법당 내,외부 청소와 일부 단청 및 도색작업을 하고 있었다. 혼자 23일부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반가우면서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27일(일)도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는 추석을 쉬러 가는 것이다.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법회에 잘 동참하고 있다.

【사례② 무릎 · 허리】

대구에서 9년째 일요법회에 월에 3~4회 참석하는 자매분이 있는데 그 중 동생분이 전화가 왔다. 언니가 다리와 허리가 너무 아파 울기만 한다고 하길래 바로 병원에 가서 일단 검사부터 받아보라고 하니 병원에서 무릎에 연골이 다 달아서 없고 일부는 너덜너덜해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리는 디스크 일환이기에 빨리 수술을 하자고 했고, 그 분의 남편을 비롯하여 가족 전체가 빨리 수술을 하자고 종용을 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 이 분은 오래(9년) 전에 인연이 될 당시 대구에서 학교 앞에 2층 건물을 갖고 있었고, 2층은 본인들이 살고 아래층은 점포가 2개 있어 그 중 하나는 세를 주고 하나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 처음 대구에서 이곳까지 온 사연은 있지만 그런 얘기는 추후 직접 듣기를 바랍니다. 여기 연등사는 항상 절에 가되 사행행위를 배제하고 오로지 공덕과 복덕을 지을 수 있는 곳에 가라고 항상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생계도 유지하는 차원에서 직업을 갖되 공덕과 복덕을 지을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법문 시 많이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분은 가게를 바로 접고 스님 법문에 따라 지체부자유한 장애인 돌보기를 했는데 금년에 와서는 자주 통증이 수반되다 결국 장애인돌봄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는 그 고통을 스스로 이겨내기엔 한계가 온 것이다. 생로병사와 보왕삼매론 등 각 경전얘기를 해 주었으나 육체적인 고통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 이때 모든 불보살님과 더불어 성인들이 보고 있나니 힘과 용기를 가지라 하며, 다시 큰병원에 가서 MRI부터 검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빨리 수술 받으라 했다. 그날 통화가 끝나고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바로 수술하자는 것이다. 그 결과를 나에게도 연락이 왔길래, 나 또한 빨리 수술 받으라 했다. 근데 다음날 아침 일찍 택시가 한 대 절마당까지 와서 보니 그 보살이다. 허리는 구부정하고 다리는 절룩거리면서 법당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모습을 보니 황망하기 그지없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이 수행자가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왔으니 기도 받고 가라며 그 다음날 아침 기도를 해 주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앉고, 일어서고, 108배를 하고 법당주위를 빗자루를 들고 쓸고 있길래 물으니 합장하며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는 것이다. 이 일 역시 금년 추석 바로 직전의 일이라 마찬가지로 이 보살도 스님과 같이 25~28일(4일간)까지 절에 일을 하고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추석 지나고 첫 주 법회에 전 가족이 와서 합장하며 내손을 잡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했다.

* 장애인 돌보는 일을 3개월만 하게 되면 세상 근심, 걱정, 불평, 불만, 번뇌, 망상, 탐욕까지도 다 사라질 것이다. 여기에 무슨 00스님, 00법사 법문이 필요한가? 그들의 입으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실천하지 않으면 말장난일 뿐이고 이미 죽은 것이다. 불법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는 바른 삼재를 알리기 위해 십수년 전부터 불교신문과 일반신문에 종교 칼럼으로서 많이도 알려왔고, 법문 중에서도 불교의 삼재(대삼재: 화재,수재,풍재/소삼재:기근재,질병재,도병재) 법문과 잡귀 행상인 띠삼재에 따르는 삼재풀이, 기도, 부적 등등은 철저히 배재하고 경전대로 바르게 실천하자고 하며, 모르면 불교사전을 보고 하면 될 것이라고 특히 입춘 법문에는 삼재 법문을 많이도 했었다. 이로 인해, 오래전부터 협박, 테러성 위협 등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은 여기 신도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모든 경전에서 불보살님께서는 바르게 알리고, 바르게 실천할 때 나는 그와 함께 하며, 또 천룡, 팔부신장을 비롯 모든 신들을 보내어 그를 보호케 하리라.. 하는 것을 여기 신도들은 소문을 들은 것도 아니고, 너, 나 할 것 없이 많이도 체험했고, 또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보고 기적과 가피의 장면을 많이도 보았다. 여기 연등사는 환우 기도 시 법당에서 다 같이 기도에 동참한 관계로 다들 직접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각종 말기암, 전의된 암, 뇌경색, 백혈병, 조현병, 희귀병 등 전국에 수많은 환우들이 기적과 가피로 새 생명을 얻어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고, 참고로 초기암(1기,2기) 환우들은 병원 가시라고 한다.

2016년 한참 테러, 협박이 있을 때는 들개 5마리가 출현해서 몇 달간 연등사를 지켰던 일. (지금도 그 사진을 가끔 본다)

2011년에는 화단에 식재된 철쭉 약 500주가 해마다 흰꽃이 피길래 2016년 초파일을 일주일(7일) 앞두고 법당 문을 열어 흰꽃이 만개해 있는 화단을 전부 보게 하고는 내년 초파일에는 붉은 꽃이 보고 싶다고 하며 신도중 조경하시는 분이 있어 붉은색으로 교체하자고 했는데, 다음날부터 흰꽃이 서서히 붉은 색으로 변하며, 초파일날 화단 전체가 붉게 변한 사건 등등 (사진 있음, 확인가능) 이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 한 일이고, 오로지 불보살의 권능이 위대하심을 여기 신도님들은 잘 알고 있다. 여기 개개인들이 봤기에 속일수가 없는 일이다. 금년(2020년) 초에는 미리 지금 환란사태를 예견하여 법문 시 주지시켰고, 그에 따른 1차 기도를 통해 소납이 직접 인연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축원했었다. 여기 분들은 소납의 지도 원리에 따라 바르게 실천하고 있기에 이 환란을 이겨내며 빗겨나갈 권리가 있다고… 그리고 달이 지나자 코로나19라는 것이 뉴스에 방연된 것이다. 거리가 있어 오지 못한 분들은 녹음을 떠서 보내 주었다. 다시 2차기도(11.5 ~ 11.22)를 하였고, 3차 기도는 이번 동안거 기도기간 내내할 예정이다.

잊을 만하면 희소식이 들려온다.

이번에는 본체가 여우인데 양의 가죽을 쓰고 방송을 타며 전국을 다녔고, 인기에 걸맞게 여기 변방에서도 거금을 들여가며 초청 법회를 연다는 현수막을 안 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수행 정도를 알지 못하고 겉모습과 말장난에 이끌려 그를 유명한 배우로 만들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다. 글장사, 말장사하는 그의 책제목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라나 …. 그의 일상생활은 출가자가 아니다. 주거 공간을 비롯, 4억을 호가하는 애마(패러리) 모든 것 정리해서 신문사에 직접 대납해 주면 돈 걱정 안하고 글을 쓸 수 있겠는데….

※또다시 방송에 제안한다. 소문이 무성한 성직자, 방송 스타급 성직자, 크고 작은 절집과 유튜브에서 신통 방송하는 이들 출, 재가자 할 것 없이 모두 모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거늘 말은 그만하고 수행자 대회를 열어서 그들의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보자. 그렇게 하면 영험, 신통하다는 등 소문은 사라질 것이고 여기에 소문에 휩쓸리고 그들을 따랐던 무리들이 더 속을 일은 없을 것이다. 소문만 내지 말고 당당하게 수행을 통해 득 한 게 있으면 공개된 무대 위에서 보일 것을 또다시 제안한다.

※ 접수처 055-633-6555
연등사(선재불교대학) | **도 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우:53211)

사례자 연락처

- 010-4807-6932 (박 ○○)
- 010-8291-9423 (변 ○○)
- 011-9143-0098 (김 ○○)
- 010-3466-9991 (김 ○○)
- 010-5699-3173 (박 ○○)



❖ 본 내용은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